

주간 이슈 리포트

43 호

2004년 5월 세째주(5/17 ~ 5/22)

◎ 주요내용

- 세상돋보기:	새로운 정치를 위하여
- 노동자 세상:	숨겨진 비밀
- 통신정책:	인터넷전화
- 정자동 6층에서	경영설명회 소감
- 만화방	시사 만화



KT노동조합 정책기획실



" 한나라당과 한국 정치가 다시 태어나는 길, 사죄 "

☞ 한국 정치뿐만 아니라 역사에까지 큰 파란을 몰고온 탄핵정국이 마감되었다. 5월 1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탄핵정국을 어떻게 정리하고, 새로운 희망을 그려볼까? 어렵지 않은 글체로 초점을 명확하게 글을 쓰는 오마이뉴스 고태진 칼럼을 인용하였다. 지난번에 밝혀듯이 고태진씨는 우리와 결코 다르지 않은 어느 소도시의 평범한 시민이다.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무를 2달 여간 정지시켰던 '탄핵 정치 극화'가 막을 내렸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결코 보기를 원치 않았던 한 편의 극화를 시청토록 강요당하였다. 보기 싫으니 상영 중지하라고 촛불을 들고나가 외쳐도 이왕 시작한 것이니 끝을 봐야 한다고 했던가?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이 공동 제작한 이 극화는 제작 동기가 워낙 황당하고 시나리오가 워낙 즉흥적이라 코미디 극화 같기도 하였으며, 장면들이 역겨울 만큼 못볼 것들이 많아서 잔혹극이기도 했으며, 화려한 액션을 동반한 액션 어드벤처물, 또는 권선징악을 표방하는 고전극이기도 하였다.

이제 막을 내린 코메디·잔혹·액션 어드벤처·고전 극화

한나라당은 현재의 결정을 100% 승복하겠다고 한다. 하나하나한 뻔뻔한 이야기를 눈도 깜짝하지 않고 뱉어내고 있다. 지금 한나라당에 필요한 진정한 승복의 모습은 참회와 사죄이다. 다수의 힘으로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고 국회를 권력 찬탈의 장으로 전락시킨 오만했던 한나라당의 과거를 대통령과 국민에게 통렬히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

그러고서야 새로운 한나라당이 있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가 있다. 이제 모든 것을 털고 새로운 정치의 출발을 시작해야 할 때다. 하지만 새로운 출발이 모든 것을 무조건 털고 가자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른바 상생이라는 것이 좋은 게 좋다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는 것이다.

이제껏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는 현재의 심판을 지켜보라며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 왔다. 이제 박근혜 대표는 절로, 교회로, 성당으로 다니며 불분명한 대상을 향해 참회와 사죄를 할 것이 아니라, 탄핵의 당사자인 대통령과 국민들을 향해 진심 어린 참회와 사죄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는 진정어린 참회와 사죄의 모습을 보여야

지난 1년 간 한나라당은 걸핏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 "대통령 인정할 수 없다", "대통령 탄핵해야 한다"며 민주적 질서를 부정하고 대통령의 자격을 문제삼는 발언을 하여 왔다. 대통령의 잘못은 지적하고 비판하더라도 이제 이런 식의 치졸한 작태도 또한 근절되어야 한다.

부당한 대통령 탄핵으로 많은 국민들이 분개하고 실망하였지만, 이제 국민의 성숙한 정치의식으로 대통령 탄핵 사태를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정치 환경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에 보았듯이 다수의 정치 권력을 이용한 잘못된 정치 행위는 비록 절차상 합법적이라 해도 법보다 더 위에 군림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치권은 충분히 유념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제 군사 쿠데타든, 의회 쿠데타든, 민주적 질서와 국민의 다수 여론에 반하는 정치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모두가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법치주의도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중요하지만 상식이 통하고 지배하는 정치 환경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함을 뼈저리게 느낀다. 법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 이용되느냐에 따라 민주적 질서를 지키는 훌륭한 기능이 되기도 하고, 단지 법적 절차의 외형을 빌린 횡포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감시와 깨인 의식만이 제대로 된 법치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치를 시작할 때

이제 현재의 기각 심판으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란은 깨끗이 끝내야 한다. 물론 깨끗이 종결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정치 행위로 국가적인 논란과 갈등, 사회적 손실을 불러온 탄핵 추진 당사자들의 참회와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과 없는 화해는 결탁과 다르지 않다.

더 이상 대통령이 먼저 사과해야 나도 사과하겠다는 식의 오만한 모습을 보여서도 안될 것이다. 대통령으로서도 사상 처음으로 탄핵을 당하고 직무가 2달 이상 정지되는 수모를 겪었

으니 만큼 이제 더욱 비상한 각오로 국정에 임할 자세가 필요하다. 탄핵을 심판한 국민들의 뜻을 더욱 하늘같이 받드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이제 기왕의 국민적 심판뿐이 아니라 법적 절차로서도 심판이 완료되었다. 당장 한나라당은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백배 사죄하라.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새롭게 정치에 임하라. 그것이 한나라당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가 새로워지는 길이다. ♪

포스코 임금동결 발표의 숨겨진 비밀(?)

- 23명짜리 '초미니 어용'노조라는 사실은 왜 보도 안하나 -

언제나 그랬듯이 임금인상교섭 시기를 앞두고 보수언론이 바람을 잡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평소에는 돌아보지도 않은 비정규직의 어려움을 말하며, 대기업의 임금동결 풍선을 띄운다. 그 사례로 포스코가 등장하였다. 모두 깜박 속을 만한 스토리를 한 인터넷 뉴스에서 숨겨진 비밀을 밝혀냈다. 유령노조와 진배없는 노동조합과 교섭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민중의 소리에서 퍼왔다.

포스코노조(위원장 성대영)가 지난 11일 임금협상에서 임금동결에 합의를 하자, 제도권언론들이 일제히 포스코가 사상최대의 실적을 냈다는 사실과 함께 "포스코노사 임금동결 합의" 등의 제목으로 이를 보도했다.

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는 사실까지 써가면서 이를 극찬했다.

파이낸셜뉴스는 12일자 <포스코의 임금동결 본받아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쉽지 않은 결단" 운운한 뒤, 임금동결이 "다른 대기업으로 확산되기를 바"란 다며 "비정규직, 나아가서 청년 실업자와 고통을 분담함으로써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고 평했다.

헤럴드 경제도 13일자 사설에서 "미국 노동계에도 이런 임금양보 바람이 한창"이라며 "포스코 사례가 우리 노사관계 선진화에 또 하나의 값진 교훈이 되길 바란다"고 쓰고

이것도 모자라 모 기자가 "[기자수첩]포스코노사의 결단"이라는 글을 써 "노동계의 주장대로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임금을 10% 이상 인상한다면 제대로 버틸 수 있는 기업이 몇이나" 되겠냐며 "비정규직 차별 철폐의 대가는 청년구직자의 일자리 박탈"이라느니 "비정규직이 그만큼 경직화되면 기업은 신입사원을 뽑기가 어려워진다"느니 "임금동결" 등 정규직의 희생을 주문했다.

정말 잘 몰라서 그랬는 지 몰라도 수많은 제도권 언론들이 포스코의 "사상최대흑자"임에도 노사의 "임금동결합의"는 보도했지만 포스코 노조에 2만여명에 이르는 직원중 단 23명만이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보도하지 않았다.

나는 위 [기자수첩]을 쓴 기자가 노동담당이나 사회부 기자가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포스코 노조가 유명무실한 노조라는 것. 때문에 97년 이후에만도 세 차례나 임금동결을 하고 임금인상을 한 해에도 5%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사회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기 때문이다.

포스코노조가 사측의 집요한 노조파괴공작으로 92년 박군기 집행부가 전원 사퇴한 이후 수십명의 어용노조 조합원들로 휴면상태라는 것. 그래서 임금동결은 뉴스거리도 아니라는 점은 사실 기자라면 다 알아야 하는 사실이다.

맞다. 포스코는 지난해 매출 14조3,593억원에 1조9,805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창사이래 최대의 흑자를 냈다. 때문에 '어용'이라는 비판을 받는 포스코노조 마저도 "현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헤럴드경제나 파이낸셜 뉴스는 "내수부진과 청년실업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 현실을 노사가 공감한 결과"등의 표현을 써가며 조중동도 얼굴을 붉힐 보도를 하고 있다.

포스코노조보다 조합원이 많은 지난해 포스코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결성한 "포항제철노동조합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포스코 임금동결에 대해 포스코 이구택회장, 강창오 사장, 최중태 노무담당전무이사, 성대영 노조위원장, 노경협의회 대표 백인규씨를 "올해 임금동결의 5적"이라고 규정했다.

보수언론들이 이에 대해 눈을 감는 것까지 맞힐 생각은 없다. 세계적인 뉴스거리인 포스코의 '초미니 어용노조'를 보도하지 않는 것도 나름대로의 언론관이라고 치자.

다만 임금동결을 "결단" "값진 교훈"이라고 표현하면서 1/1000 조직률의 대공장노조라는 사실을 감추면 그건 언론이라하기 부끄럽지 않은가. <민중의 소리 문영구 기자>



인터넷전화(VoIP) 수익모델 엿갈려

☞ 9월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한다. 인터넷전화(VoIP)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100여년 동안 지켜온 음성전화서비스의 대표주자 KT의 위상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궁금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먼저 인터넷전화(VoIP)의 의미부터 간략히 살펴보자.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란 음성전화를 기존의 전화망이 아닌 인터넷을 통해서 이용하는 새로운 통신기술이다. 따라서 인터넷전화(VoIP)를 이용하면 국제전화나 장거리 전화와 같은 고가의 서비스를 저렴한 시내전화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고 세계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지역과 통화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화사업은 데이터통신에 편무로 서비스가 될 수도 있다. 인터넷전화(VoIP)와 관련한 통신업체들의 최근 현황을 전자신문에서 펴왔다.

오는 9월 착신번호가 부여되는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를 앞두고 각 사업자들간 수익모델 마련이 새 화두로 떠올랐다. 시내전화 선발사업자인 KT는 5조원에 달하는 기존 PSTN 음성전화의 매출손실 없이 영상전화, 유·무선 통합사서함 등 부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사활을 걸었다. 반면, 하나로통신과 데이콤은 KT의 시내전화 점유율을 뺏아오기 위해 저비용 구조의 기업용 서비스 모델에 집중하고 나섰다.

KT는 VoIP서비스를 하반기부터 신·증축하거나 교환기를 교체할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한다는 목표 아래, 현재 서비스 개발 연구소를 통해 각종 기업용 부가 서비스 개발을 진행 중이다.

KT가 준비중인 VoIP서비스는 기존 PSTN 전화를 IP망으로 바꾸면서 영상메신저, 화상회의, 인터넷 통합사서함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IP-PBX를 구축, 기존 PSTN 전화회선을 그대로 두고 통합 게이트

웨이를 통해 IP망으로 전환, 대규모의 장비 투자가 없이도 VoIP서비스가 가능토록 했다.

KT 관계자는 “기존 전화 수익을 줄이지 않으면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추가해 부가 수익까지 거둘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를 개발중”이라면서 “신·증축하거나 노후된 교환기 교체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하나로통신과 데이콤은 초고속인터넷을 기반으로 KT가 독주하고 있는 시내전화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양사는 우선 저렴한 비용에 음성전화망 구축을 원하는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음성전화 시스템을 구축해주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단말기 역시, 영상회의 기능을 삭제한 음성통화용 IP전화를 중심으로 보급하기 때문에 초기 구축 비용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이외에 가정용 시장에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중심으로 VoIP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향후 통화품질(MOS: Mean Opinion Score 4.0)이 확보될 경우, KT 전화 해지를 유도해 유료화한다는 전략이다.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우선 KT가 독식하고 있는 기존 PSTN 서비스를 대체하는데 주력한다는 목표”라면서 “하반기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이 실시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업용 시장 공략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jjung@etnews.co.kr>



비전경영실의 설명회에 대한 소감

지난 5월 12일 비전경영실로부터 ‘KT의 현위치와 미래사업의 방향’이라는 주제를 갖고 오랜 만에 설명회를 들었다.

예전에도 경영에 관하여, 그리고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사측으로부터 설명회를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금번의 설명회는 과거와 다름을 느낄 수 있었다.

다른 점은 먼저 사측의 태도변화였다. 미리 결정된 사측의 입장을 관철 시키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혹자는 노사대토론회를 앞두고 노동조합의 첨예한 문제 지적을 피하기 위한 부서의 교육지책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토론회를 앞두고 그런 설명회를 하게 되면 도리어 소위 씹힐 꺼리를 스스로 제공하는 경우가 되어 토론회에서 더 큰 낭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토론회를 앞두고 설명한 것이 오비이락(鳥飛梨落)과 같이 우연히 시기가 비슷한 것일뿐이고 노동조합의 사전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이라고 믿고 싶다. 그리고 실제 설명회에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사측이 과거와 이렇게 달라진 배경은 무엇일까?

먼저 노동조합에 대한 경영진들의 이해가 달라진 것이라고 믿고 싶다. 과거 공기업 시절에 경영진은 거의 정부 지침을 그대로 집행하는 대리인의 수준을 넘지 못하였다. 물론 자율경영이라는 말을 했지만 결정된 중요사항이외에 작은 사항에 대한 자율을 넘지 못하였다. 따라서 결정된 사항을 노동조합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었다. 노동조합은 의논대상이 아니라 관철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영 KT는 경영진의 자율성이 상대적 높고, 노동조합의 협조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주요 사안에 대해 현업의 의견, 노동조합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 조율하는 것이 사업의 적합성 검증이나 추진력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경영진에 대해 투쟁의 대상으로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에 대해서는 협조할 의지가 있다는 분위기가 경영진에게 전달되었기에 노동조합을 의논대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된다.

그리고 이런 변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이 경영에 참가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노력이 변화를 일으킨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어쩌면 노동조합이 사측의 설명회 의지를 수용한 것부터가 달라진 모습이다. 과거에는 첨예한 노사대립적 사항에 대해 사측의 입장 관철을 위한 형식적 협의(실제로는 뒤통수치는)로 설명회가 이루어졌고, 이에 노동조합은 설명회 자체를 불온시하고 거부하곤 했었다.

하지만 노동조합에서는 주제 자체가 부담이 없는 사항이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언제 당할지 몰라 차라리 모르고 지내겠다는 것보다는 제대로 사안을 파악해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적극성이 있었기에 설명회를 들은 것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먼저 의견 수렴을 위해 사전에 충분히 공지되고, 기초 자료가 제공되었어야 한다. 그래야 그런 사항에 대해 고민을 하고 때로는 사전 공부를 하여 설명회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프리젠테이션만으로 설명하고 자료 제공을 하지 않았는데, 자료를 제공하여 사후에라도 의견 수렴을 할 수 있었어야 한다.

이에 대해 보안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할 수도 있다.

고민이다. 종종 보안을 이유로 비민주적인 것이 정당화되고, 또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화하거나 형식화하는 경우를 보기 때문이다.

어차피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설명회라면 보안이라는 애매한 기준으로 피동에 빠지지 말고, 보안을 지켜달라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주동적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어차피 믿고, 진행한 설명회가 아닌가?

진지하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다면 자료의 보안은 반드시 지켜줄 수 있다고 믿는다.

신뢰하는 노사관계가 상생의 관계를 만들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새로운 노사관계인 것이라고 본다. ♪

만

화

방

